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김종필	면담자	김용경		
면담장소	한일원목목공	면담지원	정지선		
면담 일시	2022년 10월 1일	회차	2	시간	1시간 17분 13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2045				
구술 개요	간판 조각을 하다 한일공예사를 인수함, 40년 가까이 하는 중, 마디카 나무로 군함을 만들었음, 옛날엔 소나무와 나왕이 많았음, 목공마을이 9-10년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어린시절 부평 청천동에서 살았음. 동네에 양계장이 많았음, 피곤해서 몸이 아프지만 보람있음, 앞으로 9년 정도 더 일할 생각.				
주요 색인어	동기, 신라 미술, 목공, 강대상, 군함, 마디카, 평화제재소, 접착제, 폐기물, 엠티비 자전거, 박스, 나왕, 소나무, 오크, 고무나무, 목공마을, 모임, 배다리, 직각, 유지, 이사, 닭, 자동 기계, 직원, 직업병, 조각, 작품, 건강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목공시작 하게 된 동기			00:00:36~ 00:05:36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수원까지 출퇴근하며 간판 조각을 하다가 한일공예사에서 인수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게 되었음. - 한일공예로 40년 가까이 하고 있음. - 그전에는 ‘신라미술’ 상호명을 가지고 1년 일했었음. - 기계는 띠톱, 오미노코, 스카시(오리는 거), 테이블쏘(키는 거) 사용.					
2. 목공 장인이 제작한 강대상			00:05:36~ 00:07:23		
- 교회 앞 목사님이 연설하는 강대상.					
3. 군함 제조의 달인과 나무 구입 제재소 이야기			00:07:23~ 00:16:28		
- 배다리에 와서 재료를 사서 군함을 몇 대 만들다가 사장님의 권유로 같이 만들게 되었음. - 해군들이 제대 기념으로 군함을 많이 만들곤했음. - 인도네시아산 나무인 마디카로 군함을 만들었음. - 나무는 ‘평화 제재소’ 에서 구입. - 폐자재를 여름에는 폐기물로 버리고, 겨울에는 난로로 사용.					
4. 구술자의 취미활동과 작품을 통한 삶의 기쁨 표현			00:16:40~ 00:21:17		
- 약속과 판매를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임. -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되어있음.					

- 재밌는 직업인데 하려고 하는 젊은 층이 없음.		
5. 목공의 원석인 나무 이야기		
- 한미 반도체 포장 박스는 MDF로 많이 사용. -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와 나왕이 많았음. 지금은 나왕이 특수목이 돼서 수업이 안 돼서 없음. - 교회용품은 오크(도토리나무)나 고무나무를 많이 사용. -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나무로 사용함.	00:21:17~ 00:32:17	
6. 신뢰로 전통을 이어가는 목공장인 목공마을 거주기		
- 목공마을이 9-10년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지분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 꺼려함. - 소비자가 오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상대함.	00:32:45~ 00:43:08	
7. 목공 마을의 변화와 목공의 기본 직각 맞추기		
- 배다리에 목공, 함석, 닥트 그런 것이 모여있었음. - 승의동에 버티기 위해 서예학원을 2년 정도 다니며 행복을 느낌. - 부족해서 애를 썼지만 오히려 마음만 바쁠 뿐 득이 되지 않았음. - 목공의 기본은 직각.	00:43:18~ 00:47:49	
8. 승의동 목공마을의 현재 모습과 이상적 모습		
- 꾸준히 목공마을이 있었으면 좋겠음.	00:48:15~ 00:53:35	
9. 대표님의 현재 상황과 어린 시절 회상		
- 현재 용현동에 거주. - 인천에 왔을 땐 부평 청천동에서 살았음. 동네에 양계장이 많았음.	00:54:06~ 00:58:17	
10. 목공 장인이 제작한 강대상2		
- 강대상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4일 정도 걸림. - 하루 이틀이면 윤곽이 나오고 칠까지 하면 4일 정도.	00:58:27~ 01:01:13	
11. 조각 도구의 발전과 목공 자동 기계		
- 글씨는 레이저 시스템(일면포)으로 팜.	01:01:20~ 01:04:50	
12. 목공장인의 일상과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음으로 직원 관리		
- 고정으로 데리고 일하는 것이 어려워서 알바를 쓰려고 함. - 선불을 받고 일하고 있음.	01:04:53~ 01:09:16	
13. 목공 장인의 소명 의식		
- 피곤해서 몸이 아프지만 의욕이 있어서 보람있음. - 9년정도 더 일할 생각. - 미켈란젤로처럼 작품을 남기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01:09:18~ 01:16:22	



없음.		
14. 2차 면담 마무리	01:16:25~	
- 몸 건강 지키기.	01:17:13	